

고규홍의 '나무 생각'



개발 이익의 희생물이 된 나무

여름의 꼬리를 물고 잇따라 태풍이 찾아온다.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한반도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모두 나무뿌리가 뿌릴 만큼의 위력을 가진 태풍이라고 한다. 그래도 너른 들에 서 있는 나무는 아무 대책을 세울 수 없다. 맞서 싸워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나무로 여겼던 고산 삼송리 왕소나무를 무참히 쓰러뜨린 건 2012년의 태풍 볼라벤이었다. 제주 도민들의 한 맺힌 역사를 기억하고 서 있던 제주 성암마을 팽나무를 무너앉힌 건 2011년의 태풍 무이파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백나무로 꼽힌 여수 울림리 동백나무의 줄기를 부러뜨린 건 2005년의 태풍 나비였다.

자연의 흐름 앞에서 나무는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나무의 운명이다. 그러나 나무의 죽음이 더 참담하게 다가오는 경우는 따로 있다.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에 의해 생명을 잃어야 하는 경우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

며 살아가는 나무의 생명을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는 경우들이 그렇다.

사례를 헤아리자면 한이 없겠지만, 1988년에 천연기념물 제355호로 지정된 전주 삼천동 굴솔은 그런 대표적인 나무다. 삼백 년쯤 된 전주 삼천동 굴솔은 생기 남치게 살아 있던 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굴솔로 인정되던 나무다. 키 14m, 가슴 높이의 둘레가 4m, 계다기 동서로 34.5m, 남북으로 29m나 펼친 나뭇가지의 모양이 매우 아름다웠다. 굵고 곧은 가지 하나가 우뚝 솟아오르다가 여러 개의 가지로 뿔으며 수평으로 넓게 펼친 수려한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학이 날아오르는 듯해서 '학송(鶴松)'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던 나무다.

삼백 년의 긴 세월 동안 나무가 살던 곳은 도시 외곽의 고요하고 평안한 낮은 산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이 지역에 난데없는 개발 열풍이 불어닥쳤다. 나무가 서 있는 산과 주변의 들녘이 택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시작됐고, 나무 곁에는 10차선 도로가 뚫렸다. 고층 아파트

가 즐비하게 들어선 건 당연한 순서다.

고층 아파트의 검은 그늘과 대로의 햇빛 때문 사이에 놓인 굴솔 부근 지역만 개발 과정에서 제외된 건,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이어서였다. 개발이 완료되자 굴솔 보호구역은 도심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하나의 섬처럼 생동맞았다. 굴솔 앞의 10차선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소음과 매연을 뿜으며 내달렸고, 나무를 둘러싼 고층 아파트는 나무가 받아야 할 바람과 햇살을 가로막았다. 나무는 생기를 잃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는 갑자기 솔잎을 한꺼번에 떨구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의 밑동에 예리한 공구를 이용해 뚫은 여덟 곳의 구멍이 발견됐고, 구멍 안쪽에 서는 나무에게 치명적 독극물인 제초제의 흔적이 있었다. 2001년의 일이다. 나무가 완전히 죽어서,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면, 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이고, 그리 되면 그 동안 소외됐던 개발 이익을 늦게나마 챙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토록 아름답던 삼천동 굴솔은 차츰

생명의 기운을 내려놓아야 했다. 솔잎을 떨군 나무는 싱그럽던 가지까지 차례대로 부러뜨렸다. 햇살 드는 동쪽으로 남 가지 일부를 제외한 모든 가지가 꺾였다. 참혹했다. 나무의 흉측해진 모습은 마치 개발과 성장에 눈먼 사람의 감춰진 속내를 반영한 듯했다. 곧바로 나무의 죽음을 막으려는 시민의 노력이 모였고, 문화재청과 전주시청까지 나서서 나무는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남기는 했다. 하지만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우리 곁의 나무들을 잘 보살피고 아름답게 살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사람살이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과 다르지 않다. 나무 몇 그루를 더 심어 성과를 올리겠다는 사업보다는 지금 우리 곁에서 긴 세월 동안 우리 삶을 지켜 온 나무를 한번 더 돌아보고 더 오래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생태계 파괴의 시대에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때다.

(나무 칼럼니스트)

社說

광주·전남 내년 국비 확보 총력 기울여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2021년도 국비 10조 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올해보다 14%(3388억 원) 증액된 2조7638억 원(315건), 전남도는 올해보다 6.7%(4521억 원) 늘어난 7조1782억 원(1006건)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광주는 AI(인공지능)와 청정 대기산업, 도시철도 2호선, 전남은 해상풍력과 첨단 정밀의료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의 경우 '청정 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광주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이 반영됐다.

전남 역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과 '첨단 정밀 의료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하지만 당초 시·도가 건의했던 사업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거나 미반영된 사업

도 많다. 광주시가 건의한 '첨단 3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건의한 사업들도 대폭 삭감됐다.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를 현행 2800m에서 3200m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은 150억 원을 도에서 건의했으나 20억 원만 반영됐다.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철 건설 사업은 1134억 원을 건의했으나 187억 원만 반영됐다.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들 가운데 우리 시도에 절실한 사업들도 많다. 아무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착수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시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힘을 합쳐 세밀한 전략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어촌 지역 의사 부족 방치해선 안 된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시·군구는 모두 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다. 특히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시·군도 있는데 전남에만 두 곳이다. 농어촌(郡)의 경우 반드시 있어야 할 산부인과나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 사각지대'도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전국의 활동 의사 수는 10만 7928명으로, 인구 1000명당 2.08명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광주·전남 27개 시·군구가운데 21곳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한 명도 안 되는 지역은 전남의 광양(0.85명)과 영암(0.89명)을 포함 모두 45곳(18%)에 달한 반면 광주 동구는 9.91명에 달해 지역

간 편차가 심했다. 특히 환자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과목인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의 전문의가 아예 없는 지역도 많았다. 담양 등 전국 11곳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영암·장성·진도·담양 등 12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 환자들은 인근 대도시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이 같은 현실은 도농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지역 의사제'를 도입,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의료칼럼

'6세 어금니' 관리



김선미 전남대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

영구치 또한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결국 유치를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평생의 구강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

만 3세 정도가 되면 젓니가 모두 나오게 된다. 이때부터 어린이들이 과자, 달콤한 음료 등을 먹게 돼 충치가 생기기 쉽다. 불소는 충치 예방 물질로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고, 충치 유발 세균(뮤탄균)의 성장 억제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이때부터 불소 도포와 함께 주기적인 구강 관리가 요구된다.

만 6세가 되면서 젓니 맨 뒤쪽에서 나오는 치아를 '6세 어금니'라고 한다. 이는 영구치 중에서 맨 먼저 나와 맞물리므로 상하의 턱 맞물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영구치 중에서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중요한 치아이므로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6세 어금니는 어린 나이에 뒤쪽에서 나오므로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없으면 충치로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어금니는 치아 표면에 홈과 구멍들이 많으므로 이런 곳을 치과 재료로 미리 메워줌으로써 충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흔히 치아를 '코팅한다'고 하는 것은 실란트 치료를 말하며 불소 도포와는 다른 예방 치료이다. 실란트라는 치

과용 플라스틱으로 메꾸어 주므로 음식물과 세균이 끼여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어금니들의 사이에 생기는 충치는 예방이 어렵다. 끈적이는 간식과 음료의 섭취가 많아짐에 따라 인접면 충치(두 치아가 맞닿아 있는 부위에 발생하는 충치)의 발생이 급속히 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음료는 구강 내에서 산성으로 작용하므로 충치를 유발하게 된다. 칫솔모가 닿지 않는 인접면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치실'을 사용해야 한다. 아이가 치실 사용을 어려워한다면 손잡이가 달린 일회용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에는 치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과에도 자주 가고 칫솔질 횟수도 늘어 충치는 적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큰 병병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선천적으로 앞니와 6세 어금니가 약하게 태어나는 '법랑질 저광화증'이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치아는 하얀 반점이나 노랑·갈색 반점을 보일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치질이 너무 약해 작은 외력이나 교합력에도 치아가 깨져 나갈 수 있다.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임신 후반기 또는 출생 후 만 3세 이전에 다량의 항생제 복용 및 상기도 감염, 비

타민D 부족, 칼슘이나 인 대사 질환 등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치아는 치질이 단단하지 않아서 충치가 생기고 쉽고, 교합력에 의해 부서질 수 있고, 차고 뜰거는 것에 민감하고, 치질이 약해서 신경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니에서도 부서지거나 심미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이다. 치료는 불소를 도포해주는 간단한 방법부터, 약해진 부위와 이환 부위를 제거하고 레진 수복을 해주며, 앞면 부위가 큰 경우 치아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

6세 이후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에 신경 써야 할 다른 문제는 치아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 나오는 '이소 맹출'이다. 이소맹출은 주로 위쪽 6세 어금니와 송곳니에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맹출 이상 치아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시기를 놓치면 다른 치아가 날 자리를 좁아지게 하거나 주변 치아 뿌리를 흡수하는 등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치아들이 잘 나고 있는지 6개월에 한 번은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소맹출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대처하면 생각보다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

기고

'수능 시험' 제도 변화를 제안한다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부정적)으로 역할을 해 왔다. 단 한 차례 평가를 통해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인합부터 창의성을 살리지 못하고 정답 찾기식 암기 학습을 가져왔다는 지적까지, 그 비판도 다양하다.

앞진데 댈친 격으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수험생들과 학부모의 격정과 고통이 더 크다고 한다. 특별히 지난 6월 수능 모의고사 결과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중간층이 사라지고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 학생들이 더 불리해졌다.

이러한 역기능을 소위 순기능(blue engine)으로 바꿀 방법은 없는가. 일단은 몇 가지 상황 변화에 주목해 보자. 무엇보다도 기존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가까운 장래에 수험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훨씬 많아진다.

교육부 추산 통계를 보면 2030년이 되면 수능생은 40만 명 정도로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 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현재도 상당수 대학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수 대학으로의 스펀리 현상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수요 과잉으로 인해 수험생이 대학을 골라가도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표준화 선별 장치의

의미가 많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내가 꿈꾸는 학생 맞춤형 교육(진로 수요 맞춤 교육)을 위해 고등교육을 다양하게 개편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선택형 교육과정(DIY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추어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 지원자도 줄 것이고,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는 훨씬 약화될 것이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는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위임해도 될 만큼 시민 의식이 성숙해졌고 사회도 투명해졌다. 더불어 교육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사회 단체의 견제가 가능해져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는 갖추어졌다. 창의성은 다양성을 기초로 가능하다. 대학과 학과마다 거의 획일적인 잣대로 선발해 오던 방식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와 학교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으로 전환한다 해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도 수용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고 대학이 입시에 예측 불가능할 만큼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은 수험생들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

이라는 점에서, 또한 수능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선별 제도라는 점에서 수능을 일시에 폐지하기 보다는 기능의 변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즉 선별 고사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 진단용이나 대학 입시의 참고 용으로 하되, 선별 방식을 정답 찾기식이 아니라 프랑스의 문제 해결이나 창의성 신장을 위한 논술 방식으로 하면 어떻까 싶다. 1회 평가로 판가름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SAT와 같이 상시 평가 체제를 갖추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위한 세부적인 준비 사항과 필요한 부대비용은 더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다.

요약하자면 선별의 주체를 대학으로, 수능 시험은 기능·내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수능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고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수능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과정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기인데 코로나로 인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을 보낸다.

無等鼓

'퐁속 속의 빈곤'은 1996년에 나온 노래로 꽤 인기를 끌었다. 1990년에 나온 영화 '야비정전'에 삽입됐던 자비에 쿠거(Xavier Cugat)의 '마리아 엘레나'(Maria Elena)를 샘플링하고, 배우 장국영의 맘보춤을 따라해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연애사를 주제로 한 쉬운 가사가 돋보였고 무엇보다 제목이 주는 의미가 날랐다.

'퐁속 속의 빈곤'은 경제학 용어이기도 하다. 우선 수요 부족으로 생산 설비를 완전히 가동하지 못하면

서 실현 가능한 생산을 달성하지 못할 때 빈곤(中庸)이라는 개념을 말한다. 세

계 공황의 해법을 제시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저축의 역기능에 주목, 비판적인 시장 전망으로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빈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빈곤한 경우에도 사용됐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부통령인 존슨에게 "미국에서 전체 인구 중 6분의 1이 절대 빈곤에 머물고 있다"며 "퐁속 속의 빈곤은 우리가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역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

다. 분영 배고픔을 겪는 계층이 존재할 터인데도 '떡방 영상'이 인기를 끌고, 투기 세력과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도시 곳곳이 고층 아파트로 뒤덮이는 현상도 이와 관련이 없지 않다.

각종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근거 없는 주장들이 SNS(소셜 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난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퐁속이지만 우리는 또 그만큼 빈곤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중용(中庸)

중용(中庸)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와 아리스토텔레스가 거의

동시에 주장한, 동서양을 관통하는 개념이다. 중(中)이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 없이 꼭 맞맞은 것을, 용(庸)은 언제나 변함없이 바른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기록권을 둘러싼 정무가 정계만이 아니라 법조계나 의료계 등 각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반추나 자제·절제는 찾기 힘들다. 중용의 도(道) 또한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유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1(광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